

“불자는 증가하는데”... 中정부 종교 지원 시급

TIME, 공산주의 체제 속 고초 겪는 中 불교 '조명'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이처럼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는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종교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국인구의 18%에 달하는 규모인 2억4500만 명이 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의 21%는 토속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 토속신앙 중에서는 대다수가 불교적 의식도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불교 관련 산업도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회 중국 국제 불교 용품 박람회'에는 많은 불자들이 방문, 불상·향·염주 등 다양한 불교용품과 채식음식 전시를 관람하며 성황을 이뤘다.

당시 전시에 참여한 '붓랜드 화불' 대표 푸루 솫탄 씨는 향료와 좌선용 방석, 카페트 등을 출품해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었다. 네팔 사업가로서 10년 간 중국과 거래해 왔다는 그는 "최근 불교 관련 산업이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인 불자들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더욱 밝다"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마친 후 중국 남쪽의 우한과 상해로 불교 용품을 팔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중국 내에서 불교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최



중국 내에서 불교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TIME

근 중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나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법적 장애를 겪고 있는 중국불교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문화혁명(마오쩌둥이 주도한 대규모의 사상·정치 투쟁으로, 독재정권이 주민대중들을 문화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해 실시한 인간정신개조운동, 1966-1969) 당시 북경에는 6,843개의 불교문화유산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4,922개가 훼손됐다. 이밖에도 50만 점 이상의 골동품이 파괴됐으며, 경전들은 불태워지고 스님들은 고문당했다.

최근에는 집권당인 공산당이 불교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종교 시설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중국 종교 담당 국무원 관계자들의 권한에 달려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교회와 이슬람교는 예배 활동을 금지 당했다.

특히 북경 근처의 비구니 천년고찰인 창흥사(長興寺)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찰 운영에 고초를 겪고 있다.

창흥사 주지 미아오 평 스님은 중국

경제 급성장 속 '삶의 질' 추고 종교 관심 증대, 특히 불교 '각광' 정부 공식 등록돼야 사찰 운영 '중요 관련 법안 조속히 마련해야'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포교를 하고 있다. 채식음식을 즐기는 불자들의 이미지를 올리기도 하며, 자신의 팔로워에게는 음력 설 명절에 외울 수 있는 경구(警句)를 보내주고, 부처님 이미지와 찬불가를 게시하는 등 인터넷 포교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창흥사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미아오 평 스님은 "당국의 공식 허가가 없으면 우리는 불자들에게 시주조차 받을 수 없다"면서 "신도들은 사찰을 재건하길 바라지만 보시금을 받기 어려우니 우리는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아오 평 스님은 정부에 공식 종교시설로 등록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지역에 불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

세"라며 "불교를 더 홍보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흥사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안루(27) 사미니는 "고대 몇몇 왕조들이 불교를 통해 이념으로 사용했지만, 현 중국 정부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국가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교가 정부나 거대기업과 밀접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종교가 발전하는 길을 막을 것이다. 나는 불교가 정부와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창흥사와 달리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된 다른 사찰들은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경 끝자락에 있는 룽취안사(龍泉寺)는 가장 큰 발전을 이룩한 사찰 중 하나다. 수백 명의 인파들이 주말마다 선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 명문인 청화대와 북경대 출신 엔지니어들은 기술지원 자원봉사 일환으로, 사찰 방문객들이 불교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불교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성 후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시급히 종교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일부 기독교인이 벌써부터 사찰 자신들을 개인 소유로 취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에는 종교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통제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지나 달 종교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선거 운동을 펼쳤지만, 중국 공산당은 당 내 주요부서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종교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며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원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세계적 스타 셰프, 불자 된 계기는?

에릭 리퍼트, '더 가디언'과 인터뷰서 불교 가치관 밝혀

"불교, 고통의 굴레 해방시켜" 평소 '화(火)'는 '친절'로 다스려 "변해야 한다" 깨달아 불교 입문 생선 요리할 때 '내적갈등' 키



세계적인 스타 셰프 에릭 리퍼트(Eric Ripert·사진)가 영국 신문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불교는 내 인생을 바꿨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The Guardian

미슐랭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은 세계적인 셰프, 에릭 리퍼트(Eric Ripert·50)가 "불교는 내 인생을 바꿨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에릭 리퍼트는 3월 20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더 가디언(The Guardian)'과 인터뷰에서 "불교는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모든 존재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종교"라면서 "나도 주방에서 화를 낼 때가 있다. 그러나 화를 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처럼 화는 강함이 아닌 약함의 상징이고, 나는 되도록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퍼트는 "친절은 '내가 너를 안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약점을 보살피주고, 보완해 주겠다는 의미"라며 "나는 내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요리사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관용이자 친절이다"고 말했다.

리퍼트는 프랑스 출신으로 17세에 파리의 400년 전통 레스토랑 '라 투르 장(La Tour D' Argent)'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이후 프랑스 요리계의 전설 조엘 로부송(Joel Robuchon)의 레스토랑 '자민(Jamin)'을 거쳐 1994년부터 뉴욕의 '레 베르나르딘' 레스토랑에서 수석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타 셰프'로 주목 받은 그가 불자가 된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리퍼트는 처음 요리를 시작한 17세 때를 회상하며 "나는 매우 어린 나이에 성공했고, 촉망받는 요리사였으며 멋진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성질이 고약했다"면서 "나는 스스로 정신적 빈곤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고, 그럴 수 없다고 느껴지자마자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리퍼트는 달라이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락연설 영상을 접한 것이 바로 그가 불교에 입문한 결정적 계기였다. 리퍼트는 "나는 달라이라마의 연설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

지만, 그것은 나의 오감을 일으켰으며,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그는 불교에 더욱 심취했으며, 자택에 명상방을 두고, 내팔 스님으로부터 명상 과외를 받는 등 수행에도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티베트 불교의 겔룩파(Gelukpa) 학교에서 달라이라마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며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퍼트가 요리사이자 불자로서 겪는 가장 큰 내적 고통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각을 충족시켜 줄 육류·해산물 등을 조리하면서도 불교계율의 '불살생(不殺生)'을 어긴다는 생각에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요리를 시작한지 오래됐지만 이 점은 지금도 내게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최소한 육류나 생선류 등을 그저 요리의 재료로 취급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요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의식과 장인 정신 등에 지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한편 리퍼트는 지난해 8월 사찰 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바 있다. 또한 2월에는 그가 진행하는 PBS-TV '아벡 에릭(Avec Eric) 시즌3' 프로그램에서 사찰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당시 사찰음식 전문가인 스님이 출연해 한국의 전통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8월 방한 당시 리퍼트는 "사찰음식은 육류를 사용하지 않아 고통이 없는 음식이며,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을 밝힌다. 사찰음식 요리는 하나의 수행으로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게 요리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익명 기자 pak502482@hyunbul.com

“보시할 때 달고 기름진 음식 피해주세요”

태국 스님 절반 이상 비만·성인질환에 시달려

태국 스님들의 과반수가 비만 혹은 성인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닷컴'은 3월 18일(현지시간) '방콕아카데미' 연구 결과에 따라 "스님들 절반 이상이 보시로 받는 음식들로 인해 비만과 고혈압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스님들이 보시로 받는 음식들은 인스턴트 차, 커피, 주스, 설탕이 들어간 각

종 음료와 달고 기름진 태국 전통음식들이다.

방콕 출라롱크로대학의 중성 앙카타바니 건강영양학 교수는 "조사에 참가한 48%의 스님들이 비만으로 거의 시한폭탄에 가까운 수준의 건강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 42%가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으며 23%가 고혈압, 10%가 당뇨병이었다. 2012년에만 스님들의 병원 진료비용으로 약 30억 바트(한화 약

98억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공공보건관리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스님들이 의료비용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에 나섰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300여 명 스님들에게는 쉐람퐁콘랏위타얌라이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과일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식들이 공급됐다.

중성 앙카타바니 교수는 "8주가 넘는 기간 동안 스님들은 영양 식단을 제공받



방콕 아카데미 연구결과 스님들 절반 이상이 보시로 받는 음식들로 인해 비만과 고혈압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인디펜던트닷컴

으며 몸을 많이 움직였다. 그 결과 스님들의 몸무게가 평균 1kg 줄었으며 허리 둘레도 평균 1인치 감소했다.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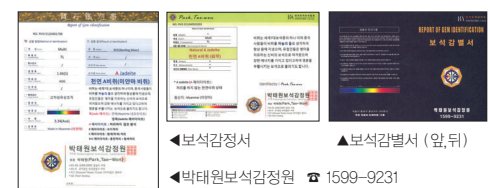
이보형 객원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 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할, 혈액순환 원할,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라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며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 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격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격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기도 도량 무심사 무심선원 역사여래마애대불 점안 및 제 9회 낙동강 수륙. 용왕 방생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낙동강변 영축산 역사여래마애대불을 진건하시고, 물에나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대법회에 수회 동참하시어, 무주 고혼 영가천도에 무량 공덕 지으셔서 가정 편안하고 세계생생 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 무심사 무심선원 사부대중일동 합창 -

- 일 시 : 2016년 4월 10일(일요일) 오전 10시
- 집 전 : 무형문화재영상학회 전수자스님 다수
- 법 사 :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회주)
- 장 소 : 무심사 무심선원경내



무심사 무심선원 선방 안내

■ 매주 토요일 다라니 철야정진
매주 1째, 3째 토요일 능엄신주 독성기도 오후 2시 선방시설완비(단체, 개인 참석방)

■ 무심사 셔틀버스운행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 4번출구 앞 대기)
· 무심사 홈페이지 다음카페 '낙동강 무심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천하절경' 낙동강변 영축산 무심사 무심선원 ☎ 053)616-8080/010-9898-0108
경남 창원군 이방면 손실길62-215(송곡리), 베이비주소: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남로2길 12-5 (대암리)